세상 거스름이 따름보다 쉽다

(예레미야 38:1~28)

1. 맛단의 아들 스바댜와 바스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먀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4.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5.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6.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세상 거스름이 따름보다 쉽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세상 거스름이 따름보다 쉽다'

중국 고사에 따르면 양나라의 장승요가 남경에 있는 안락사 절에 용 두 마리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의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까닭을 묻자 장승요는 "눈동자를 그리면 용이 살아서 날아갈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고 어떤 사람이 몰래 용의 그림에 눈동자를 그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면서 눈이 그려진 용이 벽을 박차고 하늘로 올라가버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화룡점정(畵龍點睛)"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이러한 화룡점정에 얽힌 고사를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화룡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바로 믿

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들어선 사람의 수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 즉 하늘의 아버지께 상달되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극히 적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앞서 살펴보았던 고사와 연관해서 생각해본다면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찍어야 되는 화룡점정이 발견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용의 그림에 눈동자를 그려 넣듯이 믿음에도 찍혀야 하는 화룡점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믿음은 하늘에 상달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화룡점정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거스름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예배당 안에서 완결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안에서도 완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거스름으로 믿음의 화룡점정은 이루어지고 비로소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거스름이 없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세상을 거스름이 없는 믿음은 결국에는 믿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상을 거스르는 화룡점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에 의한 유다의 참담한 멸망을 거듭해서 예언해왔습니다.
오늘의 번제를 통해서 한 장, 한 장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하고 있지만, 단순히 쭉 읽어나간다면 거의 똑같은 말이 매번 반복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므로 이 멸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항복하면 살 것이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마치 예레미야서의 말씀들은 단단한 수박의 껍질과 같습니다. 수박의 껍질 안에는 시원하고 달콤한 과육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깊이 파고들 때에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참담한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에 대한 고관들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이들은 남 왕국 유다에 불길함을 퍼뜨리는 예레미야의 멸망예언을 더는 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죽이라는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자 5절에서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라고 말한 것처럼 이들을 용인하였고, 결국 예레미야는 진창이 있는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한편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지켜보던 구스 출신의 왕궁 내시였던 에벳멜렉이 왕의 처사가 악하다는 충언을 합니다. 시드기야는 이 말을 받아들여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꺼내주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불러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묻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미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물었지만 계속해서 멸망예언을 받았을 뿐이었습

니다. 이번에야 말로 죽을 목숨을 건져주었으니 좋은 예언을 해주리라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목사님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능하면 교인들이 듣기 기뻐하는 말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훈계하는 설교를 하더라도 결론만큼은 교인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줍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또 다시 유다의 멸망과 왕의 비참한 최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항복을 권합니다.
이때에 실망한 시드기야 왕이 솔직하게 심정을 털어놓습니다. 왕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나라의 멸망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포로가 된 백성들이 같은 포로의 처지에 놓이게 될 자신을 멸시하고 학대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의 믿음을 비교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4절에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참으로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이 세상을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고관들은 왕에게 이러한 예레미야를 잡아 죽일 것을 요청했고 시드기야는 이 요청을 수용합니다. 여기서 시드기야의 태도가 문제됩니다.
시드기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믿지 않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에 말씀에 대한 궁금증과 열정이 있었고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가둔 것에도 양심적으로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시인 에벳멜렉의 충언에 힘입어서 예레미야를 꺼내주는 배려심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염려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을 가진 시드기야 왕에게 참담한 미래를 작정하십니다. 아들들이 죽는 것을 목격하고 눈을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대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해 시드기야는 믿음을 구성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들이 믿음으로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고관들이 와서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압박했을 때에 시드기야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의 믿음에는 세상을 거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거스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예배당에서 하나님에 대해 배움으로써 생겨난 믿음의 요소, 각종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립되었던 믿음의 요소들이 결코 온전한 믿음으로 성립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세상을 향한 거스름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믿음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이 예언되어 있던 남 왕국 유다와 같은 특

수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선민들의 보편적인 모든 삶의 시간에서 세상에 대한 거스름이 이루어져야 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화룡점정을 통해 비로소 믿음은 하나님께 상달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만 완결 될 수 있습니다. 백 날, 천 날 예배당에 모인다 해도 교인들만이 모인 자리에서는 믿음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예배당과 교인들의 모임을 통해 믿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온전한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거스름이 나타날 때에 증명될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에 말씀에 대한 궁금증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참담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이루지 못했기에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멸망을 극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에 대표적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의 “항상 기뻐하라 / 쉬지 말고 기도하라 /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마땅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 말이 세상에 대한 거스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보다 하나님을 제일 크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쉬지 않는 기도는 곧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에는 온갖 상황과 사건들이 시시각각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상황이나 사건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삶에는 감사할 일이 따로 있고, 불만스러워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개선하고 싶어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서 범사에 감사하겠다는 것 자체가 세상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36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거스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앞서 5장 44절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도 하셨습니다. 또 6장 31절에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삶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하시고, 할 필요가 없는 일처럼 여겨지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삶을 거스르라는 말씀입니다.

예전 설교에서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 말씀드리며 여섯 번이나 없음을 반복하고서 일곱 번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감사하게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또한 세상을 거스르는 모습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러한 거스름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세상을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도 요나단의 집에 갇혔고 백성들에게는 미쳤다고 조롱당했으며 관료들에게는 핍박받았습니다. 좋은 말도 반복하면 듣기 싫은데 왕이 바뀌는 동안에 계속하여 멸망예언을 전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예레미야처럼 철두철미하게 세상을 거스를 것을 요구합니다.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둘러싸고 있는 주변을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화룡점정을 찍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성립할 수 없을뿐더러 기만에 불과하고 무효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도 이렇게 세상을 거스르는 동안 많은 심적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는 것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세상을 거스르면서도 전혀 어렵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산헤드린공회의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19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레미야와 똑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들의 마음 상태는 달랐습니다.
산헤드린공회가 이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로마 정권에 요청하여 이들을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라는 말에서 갈등이나 저항이나 싸움과 투쟁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에 대한 거스름은 오히려 평강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거스르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 세상을 따르는 일보다 훨씬 쉽고 유쾌하고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평강이 가득한 광채 나는 얼굴로 자신을 치는 자들에게 용서와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엄청난 거스름입니다. 이 평강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육체가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

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세상에 대한 거스름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는 분이 연초에 승진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얼굴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떠나질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에서 이루어지는 세상 거스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따름과 거스름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세상을 따르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기뻐합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자녀들이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명품을 사야 체면이 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선택들에서 세상 가치관을 따르고 동조하게 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동조하기는 쉽지만 실질적으로 삶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사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괴롭습니다. 재벌 총수나 노숙자일지라도 사는 것이 쉽고 재미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쉽게 동조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쉽게 해결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이를 두고 “인생은 고해(苦海)”라고 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즉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것은 세상의 가치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돈 없어도 기뻐한다. 명품이 있어야 체면이 서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과 자부심은 명품에 있는 게 아니다. 자녀가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류대학과 상관없다.’라고 방향을 틉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흐름을 따르기 때문에 방향틀기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만 틀면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연어는 2~3년 바다에 살다가 모천회귀본능을 따라서 모천을 향하여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세상을 거스르는 삶이란 연어의 회귀처럼 힘든 일이 아닙니다. 방향만 틀면 세상흐름과 반대되는 또 하나의 흐름을 올라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오히려 인간의 삶과 세상만이 하나님께 거스르는 중입니다.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의 흐름, 모든 섭리의 흐름을 인간사회만큼은 거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사회가 공통적으로 이 세상 가치를 인정하고 달려가고 있는 흐름은 그 자체로 하늘흐름에 대한 거스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흐름을 거스른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시작하여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 흐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늘흐름을 따르는 것이 세상에서 형성된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만 틀면 하늘흐름에 나를 맡기는 것이 됩니다. 이 하늘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을 세상의 어떤 흐름도 맞서서 방해할 수 없고 막아 설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던 교육전도사 시절의 일입니다. 대천 앞바다에 갔는데 태풍이 중국 쪽으로 물러가고 아직 서해 바다가 태풍의 영향권 안에 있을 때

였습니다. 헤엄쳐서 바다 멀리까지 나갔다가 파도가 몰려오면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면 파도가 해변의 모래밭에 내 몸을 실어다 놓습니다. 그런데 한참 놀다가 파도를 정면으로 맞서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파도를 정면으로 받았는데 제 몸이 종잇조각이 구겨지는 것처럼 얻어터지면서 파도에 휩쓸러 갔습니다. 그 순간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등으로 받을 때와 배로 받을 때가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파도를 맞서도 파도에 종잇조각처럼 구겨집니다. 사람이 많다고 밀려오는 파도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늘흐름이 이 세상을 향해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파도를 정면으로 마주 보며 거스르려 합니다. 돈을 기쁨으로 삼고 건강을 기쁨으로 삼고 나름대로 이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만, 이것은 태풍에 밀려오는 파도에 얻어맞아 깨져서 진창이 되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방향만 돌리면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해 놓은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흐름에서 방향을 거꾸로 하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도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없음을 믿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기쁨과 만족이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 십자가 붙잡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해나가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승진과 높은 연봉이 있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붙잡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많이 가져야 기쁘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직장에서 삶은 하늘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흐름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제가 서해안 바다에서 몰려오는 파도에 등을 돌렸을 때에 아주 순조롭게 모래밭까지 몸이 실려 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타고 갈 때에 속지 마세요. 이 흐름에 속해야 삶이 편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엄청나게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75억 인구 중에서 극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는데 힘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공했어도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도 없으며 하나님의 하늘흐름을 거스르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삶에서는 시드기야 왕의 결말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희망이랍시고 따라가고 있으니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세상흐름에 가담하기는 쉬울 뿐 그로부터 기쁨과 행복을 얻기는 불가능합니다. 하늘흐름에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서 달려가는 흐름에 역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건강과 장수를 외칠 때에 우리는 '천만에!'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쉬워지고 편해지고 유쾌해집니다. 세상을 따름보다 십자가로 방향을 틀어서 세상을 거스름이 너무너무 쉽고 가볍고 행복합니다. 이유는 하늘흐름에 나를 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금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그 자체가 하늘흐름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든지 십자가를 기억하고 세상에 대해 죽음으로써 방향을 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언제 어디서든지 하늘흐름에 나를 맡김으로써 쉽고 편하고 유쾌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